



■ 제45회 제주시미술대전

공모전 봇물 속 대상 작가 지원 차별화

대상 최창훈의 '휴먼'
평면·입체 58점 접수
1차 통과한 15점 입상
우수는 김현수·이호철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회장 강민석)가 실시한 전국 공모 제45회 제주시미술대전에서 제주 최창훈 작가의 평면 작품 '휴먼(HUMAN)'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도미술대전에는 평면 47점, 입체 11점 등 58명 58점(도외 12점)이 접수됐다. 1차로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이미지를 접수받은 뒤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제 작품 접수가 이루어졌고 24일 2차 수상작가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대상 1명, 우수상 2명, 선정작가상 12명이 가려졌다. 대상에 이은 우수상은 평면 작품 김현수의 '서 있는 숲', 입체 작품은 이호철의 '구(口)'에게 돌아갔다.

24일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작품 매입비 포함)과 내년도 개인전 개최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우수상에게는 상금 각 300명, 선정작가상



우수 김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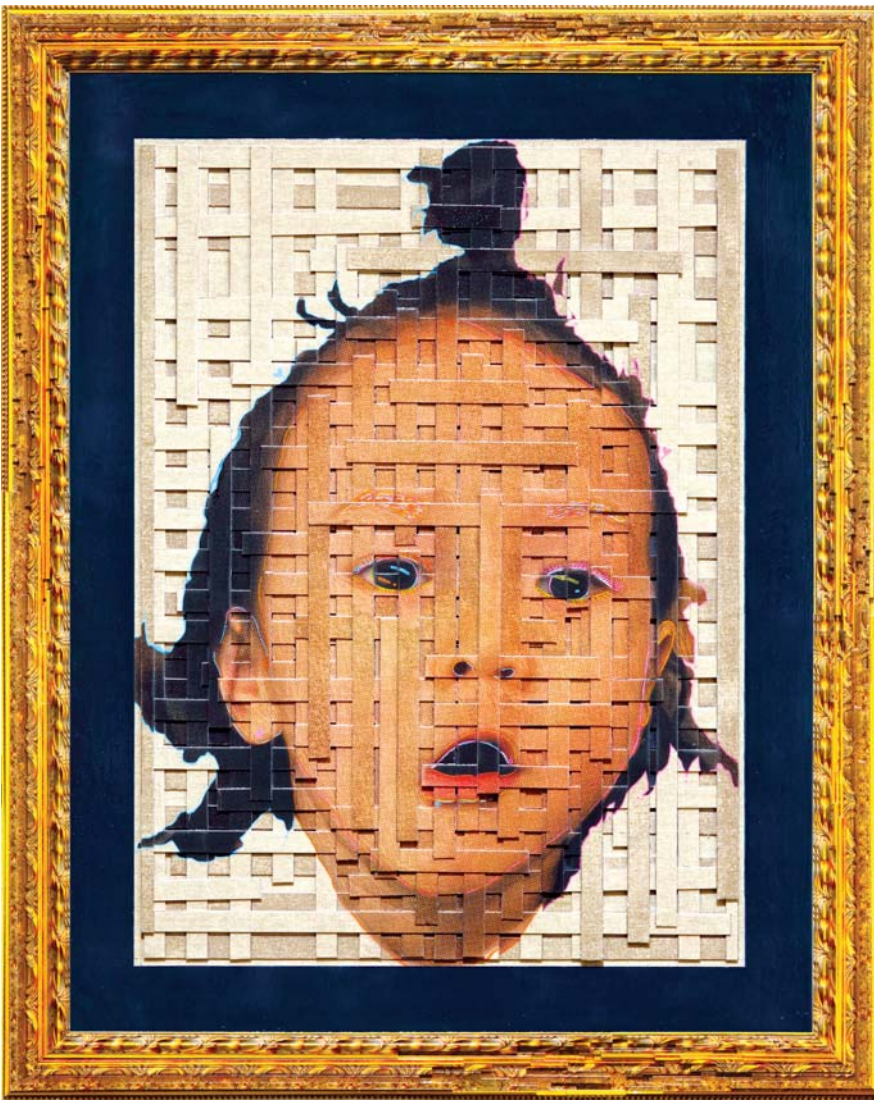
우수 이호철

에게는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됐다.

강민석 회장은 제주에서 문예재단, 대기업, 갤러리 등 여러 통로로 청년 작가 공모·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도미술대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공모전이라는 바탕 위에 혁신안을 기반으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해왔다"며 "특히 평론가, 기획자와 연계한 대상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차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최창훈 ▷우수작가상=이호철 김현수 ▷선정작가상=고윤식 고희령 신윤화 윤석민 이가희 이서운 이수진 주현이 최미선 최소희 강혜지 김송. 이들 입상작은 이달 29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상작 최창훈의 '휴먼'.

대상 인터뷰

“미술로 나만의 캔버스… 개인 넘어 사람의 이야기” “서력 15년 아직도 멀어… 만족할 때까지 쓸 것”

도미술대전 최창훈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 대상으로 뽑혔다는 말을 듣고 열렬했다.”

10년 만의 도전이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입선했던 그는 이번에 단순히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만난 제45회 제주시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최창훈 작가(35·제주시 내도동·사진)다.



제주대 미술학과를 거쳐 홍익

대학원 회화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그는 5년 전 고향 제주로 돌아와 꾸준히 창작을 펼쳐왔다. 현재 제주대에 출강하고 있다.

그동안 부조화화를 선보여온 그는 이번에 서양화의 기본 도구인 캔버스라는 틀을 벗어나려 했다. 거기에 아버지, 나 등 개인적인 사연을 넣어 사람 이야기를 해보라며 '휴먼' 연작을 시도했다.

“목재상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어릴 적부터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며 자랐다. 평면작업에서 빠져나와보자 생각했고 미술로 저만의 캔버스를 제작해 그 안에 정체성을 넣으려 했다.”

그는 내년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작품에 시대성을 담으려 한다”는 그는 디지털 작업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서예문인화대전 양문중

“열렬했다. 경험삼아 내놓은 게 큰 상을 받게 됐다. 실감이 나질 않는다.”

제45회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대상 제주 양문중(56·제주시 이도2동·사진) 서예가. 서력 15년으로 앞서 2012년 전국 공모 한글사랑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



고 같은 해 한글 미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그이지만 제주도를 대표하는 오랜 역사의 공모전 수상자 남다른 뜻을

다. 세 차례 입선한 뒤 6~7년쯤 쉬었다가 주변의 권유로 다시 도전한 끝에 값진 결실을 얻었다.

수상작은 제주 문인들의 시집을 살피다 고른 글제였다. 암울한 시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신승행 시인의 '일백호의 영광'을 판본체로 써내려갔다.

한국공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는 제주문화원 서예교실에서 현명한 서예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글 서예를 익혔다. 현재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회원으로 있다.

지난 24일 만난 그는 “아직 만족할 만큼 써보지 못했다. 지금도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 제45회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제주 양문중 한글서에 판본체 대상

전국 공모 184명 응모
전년도 비해 소폭 늘어
한글·한문·문인화 우수
김남규·문원일·김미영



우수 김남규

우수 문원일

우수 김미영

제45회 제주도서예문인화 대전에서 제주 양문중씨의 '일백호의 영광'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회장 강민석)가 주최해 전국 공모로 실시된 이번 서예문인화대전에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에 걸쳐 총 184명이 응모했다. 한글서예에는 한글 37명, 캘리그래피 26명에 이르고 한문서예에는 한문 36명, 서각 38명이 출품했다. 문인화는 47명이 접수했다. 전년도 서예·문인화 응모자(178명)에 비해 참가자가 소폭 늘었다.

심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심사에서 입상작가를 선정한 뒤 2차 심사에서 오탈자를 검수했고 3차 심사서 대상과 우수상을 가려냈다. 특정 이상(서각 제외)은 현장 회화를 거쳤다.

대상에 이은 우수상은 3점이 뽑혔다. 한글서예에는 김남규의 '용혜원 시 '노꺼리'', 한문서예에는 문원일의 '모춘', 문인화는 김미영의 '비파'가 수상작에 들었다.

특선 이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양문중(한글) ▶우수 ▶한글=김남규 ▶한문=문원일 ▶문인화=김미영 ▶특선 ▶한글=강병상 김효은

심사평

존재의 문제 흥미롭게 제기

대상작은 화면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평면처리한 후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이미지를 구성함으로써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존재의 문제를 흥미롭게 제기했다. 조형성이 우수하나 주제의식과 형식의 일관성이 부족한 작품들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미술대전 2차 심사위원장 김영호>



대상작 양문중의 '일백호의 영광'.

양은열 김양선 ▷한문=강순여 현미영 서민정 홍임희 이교후(서각) 이목기(서각) ▷문인화=정순임 양원석 강정자.

시상식은 제주시미술대전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이루어졌다. 입상작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문예회관 1·2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전선희기자

출품수 늘었지만 개성 부족

작년보다 전체 출품수가 늘었다. 그 만큼 서예, 문인화 인구가 늘었다는 걸 보여준다. 질적인 면은 향상되었다고 보기엔 아쉬움이 많다. 개성이 부각되는 색다른 시도가 눈에 띄지 않은 식사함이 있었다. 대상으로 뽑힌 한글 서예작품은 열심히 습작하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다.

<서예문인화대전 3차 심사위원장 이형준>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시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